

6-28-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1-9

말씀제목: 우리를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

에녹은 65 세에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창 5:22-  
24)

히브리어 므두셀라는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므두셀라의  
손자인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홍수로  
죽이시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의인 롯과 혼인하지 않은 두  
딸들을 진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증거하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7 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게 될  
때에 그들은 그에게 속아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이 왔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늘로 옮기심으로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이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 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단  
8:25)

침례인 요한은 당시 위선자  
종교인들에게 그들은 진노의 날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마 3:7)

사도 요한은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 올  
때에 일어날 일들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4 장 이후부터 교회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휴거된 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4-9)

사도 바울도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롬 5:8-9)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롬 1:18-20)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끌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대장들과 힘 있는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과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계 6:12-17)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신부가 세상을 향하여 하는 말을 증거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계 22:16-17)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끝낼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시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계 22:20-21)” 할렐루야!